

로마에 갈 수만 있다면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 편은 동북을, 한 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개역, 사도행전 27:9-26]

바울은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예수를 만난 후 바로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꿈이 조그맣게 짝이 나서 점점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소망, 작은 꿈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엄청난 꿈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개종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일에 앞장 섰습니다. 위낙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안디옥 옆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적어도 10여년을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젊은이가 꿈을 다 접어놓고 고향에서 천막이나 짓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텐트 메이커라면 문자적으로는 천막 짓는 사람이겠지만 '자비량 선교사'란 뜻으로 씁니다. 바울이 이 기술을 가지고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고향에서 텐트만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짐작이지만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주변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라는 꿈, 안디옥으로!

고향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동안에 바울의 꿈이 차츰차츰 자라납니다. 텐트를 만들며 지내던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바나바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바나바가 어느 날 바울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이 택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나바 자신이 파송을 받아 여러 해 동안 노력한 결과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니까 바울이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파문된 바울을 밝은 세상으로 끌어낸 셈입니다. 작은 꿈이 생긴 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둘이 함께 2년 동안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날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선교사역을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세워놓으니까 선교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바나바의 고향을 거쳐서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가졌던 꿈이란 것이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진 아시아(현재의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입니다.

자라는 꿈, 아시아로!

얼마 후에 '지난 번 우리가 가서 세운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나서려다가 마가 문제로 크게 싸우고 헤어집니다. 바나바가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좋은 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번 갔던 곳과 반대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를 둘러보았다는 것은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그 지역에도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동료와 싸우고 헤어진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그 아픔을 잠시 묻어둔 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라는 꿈, 마케도니아로!

이 때 바울이 가졌던 소원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됐습니다.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돼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빌립보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이 때 작은 바다를 건너간 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의 꿈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이리저리 돌아서 아테네를 거치고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에베소의 부흥!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세 번 다녔는데 그 코스라도 기억해 두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얼마 후에 또 세 번째 여행을 갑니다. 이유는 지난 번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째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로 직행합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배운 그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결과로 점치는 자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의 책을 전부 불에 태웠는데 은 오만에 해당되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은 오만이란 액수는 지금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종을 천칠백 명이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결과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바울의 머리 속에는 '내가 다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을 둘러본 후에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도 돌아보려던 작은 꿈이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면서 지난 번에 세웠던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길이 아주 단축됩니다.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뱃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만 타라 그러면 바울을 죽여 버리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전과 달리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되돌아옵니다. 과장한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남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처럼 먼 길을 돌아 옵니다.

귀로에 다시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왔을 때 그 유명한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너무 오래 했더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이를 살린 것 때문에 드로아의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1, 2, 3 차 전도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삼차에 걸친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 열 이틀 만에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많이 두들겨 맞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다행스럽게 로마 병정들이 즉시 뛰어와서 바울을 체포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진 않았습시다라는 로마병영에 갇히게 됩니다.

전도여행의 상급!

하나님도 무심하지시지 삼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상금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억울하게 매 맞고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그 동안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준 대접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 열 이틀 만에 갇혀서 2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잡혀오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음과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병영 안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스라엘의 공회를 다 모아서 그 앞에서 복음을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공회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기관입니다. 그 높은신 분들을 다 모아 놓고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며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태까지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늘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지만 여기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더구나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맞아 죽을 일이지만 여기서는 천부장이 지켜줍니다. 심지어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천부장이 다 불러 모아주었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특히 결사대 사십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며 매복하고 바울이 이송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이래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빼돌리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빼돌릴 때 결사대 사십 명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호송하는데 로마군인이 몇 명이 동원됐는지 아십니까? 보병이 200명입니다. 마병이 70명, 창을 든 군사가 200명입니다. 바울 하나를 빼돌리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가 470명이었다는 것은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고, 위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도 로마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2년이나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그립바 왕과 그 부인들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갇혀 있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은 무척이나 즐거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치기 전도사도 이런데...

신대원에서 어떤 젊은 전도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거든요. 전도사가 됐는데 설교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하니깐 하고 싶어 죽겠네요. "교회에서 안 시켜줘?" 하니깐 일년에 한번쯤 시켜 준답니다. 이해가 갑니까?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데 한번도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같으면 목사님, 부목사님 쪽 있는데 금방 신학교 들어간 그 젊은 전도사에게 누가 설교를 시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고 싶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 젊은 전도사에게 어디서 누가 불러서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펄펄 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 젊은 전도사, 참, 젊은 전도사는 아니네요. 금방 신대원 들어간 전도사 불러놓고 매주 설교를 시켰다는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 앞에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초등부 성경학교 하느라고 나갔다가

수요일 오후 5시쯤 도착해서 집에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설교한다고 쫓아오니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오늘은 좀 쉬시던지 다른 분 보고 설교하라 그러시죠.” 하더군요. 제 답변은 “수련회 마치고 왔다고 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설교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했더니 “졌습니다.” 하네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설교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관리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바울은 대단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바울에게 아무 상급이 없었던 듯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가장 좋아할, 상류층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쉬라고 해도 쉬지 않을 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떤 면에서 죄없이 매 맞고 억울하게 갇혀서 2년이나 로마의 병영 안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여보내줬습니다. 바울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대 안에서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지냈습니다. ‘갇혀 지내서 참 답답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너는 내어보내 놓으면 쉴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억지로라도 가둬놓지 않으면 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널 위해서 여기 좀 가둬 놓은 것이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내보내 놓으면 어디 가서 온천욕하고 누워 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가둬 놓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널 가둬 놓은 것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들이 학교에 모이면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애가 잠을 안 자서 참 걱정입니다.” “애가 왜 잠을 안 자는데요?” “자라, 자라, 해도 공부밖에 안 해요.”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애는 그럴 만한 애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다 설치도 책을 안 놓는 아이거든요. 그러고도 남을 아이입니다. 그 애 이름이 송래인데 제가 그랬어요, “송래 엄마는 빨리 돌아가시고 다음부터 어머니회 한다고 그러면 학교 오지 마세요.” 어디 다른 엄마들 기죽일 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 말이 맞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만하고 좀 쉬어라 해도 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자유를 마음껏 주면서 2년 간이나 갇힌 것은 다음에 귀한 일을 하기 위한 강제휴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둬 놓지 않으면 도저히 쉬지도 않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휴식의 기간을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자라는 꿈, 수도 로마로!

어떤 면에서는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휴식보다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열심이 더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휴식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 번이나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교할 기회도 주시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선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렇게 있느냐?’ 총독이 바뀌어도 나갈 기미가 없자 결국은 ‘내가 무고하게 여기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간 항해를 해서 지중해의 섬 그레데에 닿았을 때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쉬고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누가 죄수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의 ‘여기 보다는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으니 거기 가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는 의견을 따라서 백부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출항했습니다. 일개 죄수의 말을 들어줄 리는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었는지 곧 알게 됩니다. 행색은 초라해도 그렇게 무시해도 좋을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단 큰 바다로 나갔는데 처음에야 잘 나갔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다는 거칠어지고 풍랑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돛이 찢어지고 배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게 되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못한 채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십사일간 고생을 하고 난 후에야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 걸 압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와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해도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격려를 하였습니다. 일개 죄수였지만 그 죄수의 말을 듣는 게 옳았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물길에 점점 알아지는데 바울의 눈이 참 밝았던 모양입니다. 선원들이 거룻배를, 지금 말로 하면 구명정을 내리는 걸 바울이 발견하고 백부장에게 고합니다. '저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자고 저렇게 도망가게 되면 우린 다 죽습니다. 당신도 살 수 없으니 알아서 처치하십시오.' 그래서 구명정 줄을 끊어버립니다. 단순하게 눈이 밝은 정도가 아니라 매사에 사려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일거리가 보이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거리가 아예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육지에 다가가다가 배가 좌초되고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배가 깨어지기 전에 모두 육지로 올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은 전부 죽이고 가자'고 할 때 백부장이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치면 병사들이 대신 죄를 져야 하니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결국은 죄수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전원이 상륙하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불을 피우고 바울이 불에 나무를 넣었더니 거기서 뱀이 한 마리 튀어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틀림없이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늘이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툭툭 털어 버리자 '아!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장 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바람에, 이 원주민들이 다시 바울 일행이 먹을 것을 챙겨 주어서 다시 로마로 떠나게 되지요.

죄수라고?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번쩍 번쩍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보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선장보다 더 권위가 있고 책임을 맡은 백부장보다 더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였지만 그로 인해서 선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목숨을 구하는, 죄수는 죄수지만 특이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이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이 아니고 셋집이었습니다. 셋집을 얻어서 지냈는데 죄수를 지키는 방법이 죄수를 지키는 로마 병사 한 사람과 죄수를 같이 사슬로 묶어 놓는 겁니다. 누가 불편합니까? 저는 바울은 별로 불쌍하게 안 보이는데 바울을 지키는 로마 병사가 참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습으로 바울은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옆에서 로마군인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활동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가운데 이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야!

바울의 소원은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죄수인들 어떠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묘하지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이를 전함으로 해서 바울이 얼마

나 힘들어 하겠느냐'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씀이 빌립보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의도로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수가 됐든, 개선장군처럼 가든,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있느냐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요,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가 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기에 이런 고상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년 쯤 지난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고 무죄 판정으로 석방됩니다. 석방이 된 후에 바울은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스바냐 지역까지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더 투옥이 됐다가 나중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해진다면 비록 죄수의 신분이든 아니면 옥에 갇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있느냐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내 자존심이 좀 꺾이고 내가 좀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게 무슨 대수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 기준이 아닌 복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유럽을 신고 간 배처럼!

바울이 이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결과 세계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아가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오늘의 문명 세계의 주도권이 유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고대 4대 문명이 모두 아시아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세계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바울을 신고 간 배는 유럽을 신고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란 죄수를 신고 간 그 배는 단순히 바울만 신고 간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신고 갈 만큼 위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격적인 욕을 얻어먹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잃어지고 가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비난을 받는 일이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야단을 듣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로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산다면 내가 좀 구겨지고 내 자존심 좀 상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었느냐? 만약 바울이 우리 곁에 살아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죄수인들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로마로 갔던 바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곳을 만듭시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요? 우리 교회만 해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도 부딪히는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잘 낫고 저 사람이 못 나서도 아니고, 저 사람하고 나 하고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내가 욕 좀 얻어먹어서 교회가 산다면 욕 좀 얻어먹는 게 대수냐?' 이런 정도로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겨우 열 이틀 만에

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애매하게 매 맞고, 그것도 억울하게 이년이나... 그렇게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에게 직접 그것을 물어보면 그 이년동안 어찌면 참 행복했노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라도 휴식을 취야만 휴식할 수 있었던 그 열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있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작으나마 바울의 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참고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작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귀한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귀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